

##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James Lee (이규수)

나의 인생과 신앙에 매우 깊은 영향을 준것은 뉴저지 장로교회에서, 또 수도원성경반에서 Esther 목사님하고성경 말씀을 배운 것이다. 성경에 "임마누엘" 단어가 나온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일생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던 것을 믿게 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14)

1961년 7월 22일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났다. 2살 때 예방주사를 세브란스 병원에 맞으러 갔다. 그리고 왼쪽 엉덩이에다 맞았다.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주사를 맞고 왼쪽 다리를 못 써서 자꾸 넘어진다는 것이었다. 한 3년간 치료를 받으러 다녔다. 그리고 많이 좋아져서 두꺼운 가죽 구두를 안 신고도 걸어다닐수 있었다고 하신다. 그러나 여태까지 조금 절뚝거리면서 걷는다.

한국에서 국민학교를 반장만하고 다녔다. 그리고 저희 형제의 교육때문에 미국으로 와서 Fort Lee Intermediate 과 High School을 나왔다. High School에서는 College 준비를 하기 위해서 Soccer 하고 Track에 participate 했다. 12학년때 축구 경기를 하면서 내가 미끄러지는데 opponent defender가 공을 찬다는게 내 얼굴을 찔다. 오늘쪽 얼굴이 fractured. 13시간을 수술을 했다. 아직도 내 얼굴 안에는 철사들이 있다. 근데 왼쪽 발을 잘못 쓰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구 주전 member에 captain까지 했다.

그리고 Carnegie Mellon University에서 Computer Science를 전공했다. 친구들과 가족의 축복을 받으면서 3년간 NSA에서 Analyst로 일을 했다. 그러던 하루 병이났다.

내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 성경에 Job 정도는 아니였어도 나는 방황하고 해메고 있었다. 부모님 가게에 가서 일을 했다.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을 잊은채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던 와중 할머니의 소개로 이신경 전도사님을 만나 가정을 꾸미고 두 아들이 출생했다. 성경공부를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깨달은 것인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구원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이고 은혜였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가갈 때 "믿음이 약한자여"라고 하신 것을 생각하며 다시 Software Engineering Job들을 찾기 시작했다.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로 Accenture, AT&T, Verizon Wireless, New York Life 등등에서 일을 했다.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1989년 5월 부터 뉴저지장로교회에 가서 김창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나는 유아세례를 받고 국민학교 때 한국에서 교회에 나갔는데 미국에 와서 출석을 안하였다. 맨 처음 교회에 나갔을때 한국어를 잘못해서 한국교회에 나가기 싫어했는데 Wife의 Suggestion으로 계속 참석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일주일이 지나면 설교 말씀이 기다려졌다. 1997년 김성인 장로님(그때는 집사님)이 나를 성가대실로 데리고 가서 테너를 하라고 하신다. 유치원에서 국민학교 5학년까지 Piano 교실을 다녀서 악보 보는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Pitch 와 Tone이 힘이들었다. 그러나 연습하는 과정과 강단에 올라가서 찬양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것을 더 느꼈다. 부족한 제가 아름다운 Music에 따라 찬양할 수

있다는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시편 145:1-3) 그때 병이 난 이후 친구들과 교제를 멈추었다. 지금도 옛날 친구 몇명하고 가끔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누구 친구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같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임재하시는 것도 느끼니 더 좋은 것 같다. 요근래에 와서 차사고도 나고 눈에 피가 터져서 수술도 하고 했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니 걱정이 없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신명기 31:6).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자니라" (마태복음 7: 7-12) 오늘 설교의 성경구절이다. 나한테 도전이 되는 구절이었다. 내가 여태까지 간절히 구해 본 적이 없다 여태까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순종하며 감사하였다. 근데 이제부터는 간절히 기도할것이다. 내 comfort zone에서 벗어나야한다. 나를 더 개발하고 cultivate 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전파해야겠다. 인생은 하루하루의 경험이다. 이 경험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같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 이경험이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은 나의 삶의 기준을 보여주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였고 위로와 힘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었다.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1882년 Friedrich Nietzsche가 그의 책에 "god is dead"라고 했다. 근데 나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같이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말씀을 배울수 있게 계획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가르쳐주시고 설교해 주신 뉴저지장로교회와 수도권 김창길 목사님과 Esther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James Rhee (이규수),  
뉴저지 장로교회 안수집사, 호산나 찬양대 Member  
Data/AI Engineer, 수도권 금요성경반 회원

### 렉시오 디비나 (Lectio Divina) 모임

2015년 초에 김영덕, 정창문, 조인목, 김영호, 이상화, 한진우, 김에스더, 김창길이 시작한 오십대 중견 목회자들의 초교파 모임으로 월1회 매월 첫째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에 모임이며 기독교 고전이나 베스트 셀러를 선정하여 가능한 매월 한권을 읽고 발제자가 요약과 토의제목을 프린트물로 발표하며 회원들은 선정한 도서를 필히 읽고 와서 토의에 참석한다. 책 구입은 회장의 책임이며 점심접대는 번갈아 가며 한다. 모임 전 경건회를 하는데 기도자와 멧세지 전달자가 있는데 가능한 5분이상 멧세지를 하지 않도록 한다. 요즘은 공동성경 읽기로 바뀌어 묵상, 나눔,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모임이 진지하며 인격변화와 신학 정립과 강단설교에 도움을 준다. 여러 교단의 목회자들이 모여 서로 다른 입장에서 상호 이해하며 피차 배움을 통해 친근해진다. 김창길 목사가 Consultant로 계시다. 현재 UMC, KPCA, 구세군, PCUSA, FG, UPCA 목회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 지난동안 봉사했던 섬김이는

초대 회장	조인목 목사 (KPCA)
총무	한진우 목사
2대 회장	김영호 목사 (KPCA)
총무	조희창 목사 (KPCA)
3대 회장	강신균 목사 (KPCA)
총무	조희창 목사 (KPCA)
4대 회장	고한승 목사 (UMC)
5대 회장	전인숙 목사 (UCC)
6대 회장	최다니엘 사관 (구세군)
7대 회장	남승분 목사 (UPCA)
8대 회장	전진은 목사 (PCUSA)
9대 회장	김상목 목사 (PCUSA)
10대 회장	이정환 목사 (FG)